

두 장의 지도와 김남천의 ‘해방 전후’

—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의 서사 공간 비교를
중심으로

홍 덕 구*

요약

1945년 10월 15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김남천의 장편소설 『1945년 8.15』는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실시간으로 담아낸 작품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1945년 8.15』가 식민지 말기에 발표된 『사랑의 수족관』과 연작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여, 두 작품이 일종의 역상(mirror image)으로서의 서사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장에서는 『1945년 8.15』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패전 이후 ‘젯더미로부터의 부흥’이라는 기원의 신화를 해체하는 사카사이 아키토의 일본 전후공간론 연구를 연구 방법론으로서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사랑의 수족관』의 서사 공간이 상업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성의 도심부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수족관’이라는 제목의 의미와 관련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확장된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을 지도 그리기(mapping) 방법을 이용해 제시하고, 각 장소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작중 등장하는 세 집단, 즉 친일 자본가 집단, 학생 집단, 그리고 좌익 운동가 집단이 모두 일제가 남긴 적산을 통해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양상을 전후공간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사랑의 수족관』에 비해 10배 가까이 확장된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에서 이동의 테크놀로지로서 ‘자동차’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작중에 나타난 고급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그리고 미군 군용차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45년 8.15』가 좌우의 이념대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도식화된 서사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와 욕망을 중층화된 도시공간 속에 배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 국립군산대학교 초빙교원

주제어: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1945년 8.15』, 도시공간론, 전후공간론, 지도 그리기, 적산

목차

1. 들어가며
2. 수족관의 안과 밖
3. 대경성에서 ‘해방 서울’로
4. 총후(銃後)와 적산의 전후공간론
5. 확장된 도시공간과 이동의 테크놀로지
6. 결론을 대신해서

1. 들어가며

김남천이 1945년 10월 15일부터 『자유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장편소설 『1945년 8.15』는 해방 직후 최초로 발표된 장편소설이자 해방기의 격동과 혼란상을 실시간으로 담아낸 문학으로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김한식은 『1945년 8.15』가 식민지 말기에 관찰문학론에 입각해 창작했던 『사랑의 수족관』을 김남천 스스로 부정한 작품이라고 보았다.¹⁾ 김동석은 『1945년 8.15』를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의 리얼리즘 문학론(창작방법론)과의 관계(단절 또는 초월)로만 바라보았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이 작품을 당대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역사적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양심적 인간 유형들을 성격화시켜 다양한 사회적 현실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 인물들의 내적 고민과 갈등(인물로 된 이데)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보았다.²⁾

1) 김한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229-247면.

2) 김동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2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70-171면.

『1945년 8.15』가 『사랑의 수족관』, 『동방의 애인』과 함께 묶이는 연작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지적한 와다 도모미,³⁾ 차성연⁴⁾의 연구도 주목을 요한다. 와다 도모미는 『1945년 8.15』에서 서사의 대부분을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향하는 한 쌍에 대한 묘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랑의 수족관』에 이어 재차 등장하는 이신국 일가에 대한 작가의 집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천은 화신 그룹과 오너인 박흥식을 모델로 이신국 일가를 창조했는데, 그중에서도 부권(父權)이 정한 운명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여성 이경희의 이야기가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성연은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호와 『1945년 8.15』의 박문경이 '수행자(agency)'로서의 성격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완결된 사상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에 상응하는 유동적인 가능성을 보고자 했던 김남천의 모색이 '수행자'로서의 인물유형에 녹아있다고 보았다.

이 글이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는 선행연구는 경성을 서사 공간으로 삼는 식민지 말기 김남천 소설들을 느슨한 연작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김남천이 재현한 대경성 이후의 공간질서의 변화와 구획화를 발자크의 파리 재현과 연관 지어 분석한 권은의 연구이다.⁵⁾ 이는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라는 두 작품 간의 양자적 관계를 넘어 경성/서울이라는 도시 공간과 김남천 문학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945년 8.15』를 김남천의 1930년대 문학론(창작방법론)의 연장으로서, 또는 해방기 정세에 대한 일종의 기록문학(르포르타주)으로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3) 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213-240면.

4) 차성연, 「해방 전후 김남천 문학의 수행성과 연속성-〈사랑의 수족관〉, 〈1945년 8.15〉,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419-449면.

5) 권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작과 비총체화된 총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6, 한국현대문학회, 2022, 235-268면.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참조하여 『1945년 8.15』를 『사랑의 수족관』을 비롯한 식민지 말기의 경성 배경 작품들과 연관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해방기라는 새로운 시대-공간을 맞아 갱신된 서사로서 파악할 것이다. 이 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서사 공간의 문제이다. 두 작품에는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 주요 장소 또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두 작품이 동일한 지리적 공간을 서사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공간에 위치하는 장소들의 의미는 각각의 작품이 놓여 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1939년에 창작된 『사랑의 수족관』이 식민지 조선의 중심 도시 경성을 서사 공간으로 삼고 있다면, 1945~46년에 창작된 『1945년 8.15』는 해방과 동시에 회복된 수도, 즉 서울을 서사 공간으로 삼고 있다. 피식민자이자 전향한 사회주의자였던 김남천이 재현한 1939년의 경성과 조선문학가동맹 맹원으로서 남로당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던 1945~46년의 김남천이 재현한 서울은 서사 공간으로서 상이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도시공간의 물질적 토대는 동일하지만, 정치적·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소/공간의 명칭과 서사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⁶⁾

따라서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을 『사랑의 수족관』과 비교·대조하는 작업은 경성/서울을 주된 서사 공간으로 삼은 사회주의 작가 김남천의 ‘해방 전후’를 연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해방공간’이라는 표상에 투사된 한국 사회의 집단적(무)의식을 살피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일본 전후공간(戰後空間)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

6) 마에다 아이에 따르면 현실의 지리적 공간 위에 소설의 공간이 겹쳐질 때 두 공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사 공간이 만들어진다. 前田 愛,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学』, 筑摩書房, 1992.

7) 이 용어를 제시한 김윤식에 따르면 ‘해방공간’은 해방 직후부터 남한 단독 정부 수립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그 시기의 역사적 방향성은 ‘나라 만들기’로 집중되었다. 김윤식, 『해방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 민음사, 1996, 2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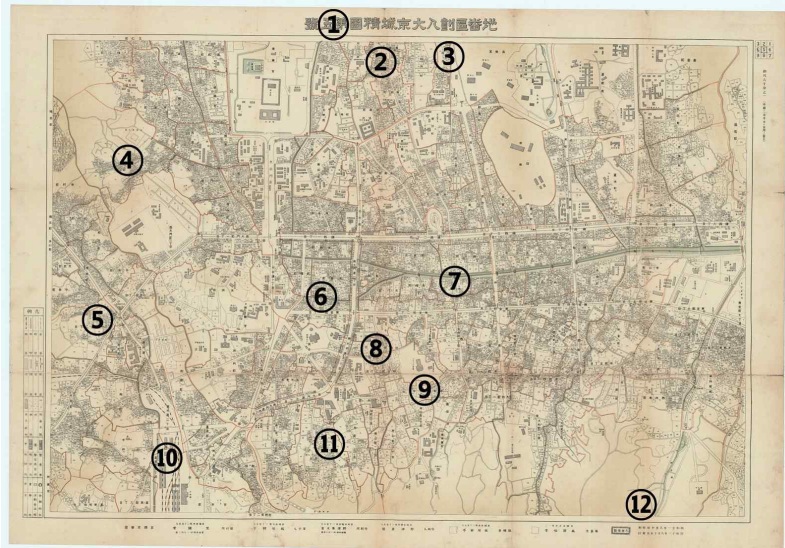
를 통해 패전 이후 '갯더미로부터의 부흥'이라는 기원의 신화를 해체하는 사카사이 아키토의 연구를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고자 한다. 사카사이 아키토는 전후 일본의 원풍경으로서 '갯더미' 표상이 제국 일본에서 전후 일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라는 국민의 단일성·균일성이라는 허구를 구성하는 매개로 기능했다고 지적한다.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전후 갯더미가 된 국토'라는 표상과 전후 일본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새롭게 출발했다는 서사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경시하고, 총력전 체제의 지배구조를 존속시킨 제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후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해방공간을 바라보면 『1945년 8.15』에도 적극적으로 재현된, 좌우가 대립하며 데모와 빠라가 범람하는 해방공간의 원풍경이 오늘날 '한국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가 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에는 그 외에도 각각 다른 이념적, 계급적, 젠더적 배경을 지닌 존재들의 목소리와 욕망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으며, 식민지적인 것들과 식민지-이후적인 것들, 민족국가적인 것들, 외래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중층성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통해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을 지도 그리기(mapping) 방법을 이용해 대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작품이 각각 경성/서울의 어떤 장소 또는 지역들을 재현하고 있는지, 그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고 왜 발생하는지, 발생한 차이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필 것이다.

8)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옮김, 『갯더미』 전후공간론, 이숲, 2020, 11-16면.

2. 수족관의 안과 밖

우선 『사랑의 수족관』의 주요 장소들과 그 지도상 위치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림 1〉 『사랑의 수족관』의 주요 장소들(경성)⁹⁾

〈표 1〉 〈그림 1〉의 번호 설명

번호	장소	지명
①	이경희의 집	삼청동
②	김광호의 집	가회동
③	이신국의 저택	원동
④	송현도의 집	사직동
⑤	아마도아파트(강현순後)	죽림정
⑥	대흥콘체른	황금정
⑦	수운장아파트(강현순前)	수표정

9) 〈그림 1〉과 〈표 1〉은 홍덕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다시 읽기」-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보학회, 『구보학보』 13, 2015, 43-44면에서 인용함.

⑧	청의양장점	명치정
⑨	명과(名菓), 가네보	본정
⑩	경성역	
⑪	찻집, 식당	옥정
⑫	청수루(요릿집)	장충단 방면

〈그림 1〉은 1936년에 발행된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地番區劃入大京城正圖)〉(이하 〈대경성정도〉)의 5호 분도(分圖)로 1:6,000 축척의 지도이다.¹⁰⁾ 지도의 범위는 좌로는 죽림정(현 중구 충정로), 우로는 동대문, 위로는 가회정(현 중구 가회동), 아래로는 경성역(현 서울역)으로, 이른바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서울의 전통적 도심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사랑의 수족관』의 주요 장소들은 이 지도 안에 대부분 표시할 수 있다. 삼청동으로 설정된 ①이경희의 집이 지도의 위쪽 경계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나 ②김광호의 집이나 ③이신국의 저택과 마찬가지로 '북촌'이라는 조선인 거주지역에 포함되므로 장소/공간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지도는 실제 지형을 평면 위에 추상화시킨 결과물로서 이데올로기적 대상일 수밖에 없다. 〈대경성정도〉 또한 마찬가지이다.¹¹⁾ 『사랑의 수족관』의 주요 장소들이 경성의 시가 지역만을

10) 이 글에서 사용된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와 〈KYONGSONG OR KEIJO(SEOUL)〉는 서울역사 박물관 지도 아카이브(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New/NR_archiveList.do)에서 열람할 수 있다.

11) 지도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도는 1936년 4월 1일 고시된 경성부 부역 확장에 따라 변화한 도시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1:25,000 축척의 일람도와 1:6,000 축척의 13장의 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축척을 사용하여 경성 시가를 세밀하게 재현해야만 했던 이유는 당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하여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청량리와 마포, 영등포 등의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여 3배 가까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확장과 토지 거래 증가로 인해 필지(筆地) 정보의 제공이 중요해졌고, 기존에 사용되던 소축척 지도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지적 정보들을 담아내기 위해 새로운 대축척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영주,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의 재현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다른 <대경성정도> 5호 분도에 대부분 담길 수 있다는 것은 김남천이 이 소설의 서사 공간을 철저하게 ‘수족관’으로서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평양 고무공장 총파업에 참여하고 이를 배경으로 희곡 「파업조정안」(1931), 소설 「공장신문」(1931), 「공우회」(1932) 등을 창작한 이력이 있는 김남천이 경성 외곽의 공업지대와 노동계급을 적극적으로 재현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사랑의 수족관』에도 이른바 ‘경인일체(京仁一體)’로 표상되는 공업지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는 한다. 작중 경희가 탁아소 건립 후보지로 염두에 두었던 곳은 동대문 밖과 영등포로 당시 대표적인 경공업지대였다.¹²⁾ 이후 실제 탁아소 건립은 대흥콘체른의 계열사인 대흥공작 공장이 있는 신길정(현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이루어진다. 경희가 언급한 ‘경인일체’가 군수산업 확대를 위해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대한 공업지대 및 이에 수반되는 주택·상업지구와 제반 시설들을 구비하려는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었음을 고려하면, 『사랑의 수족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김남천의 재현은 다분히 소극적이다. 이는 작중에서 경희의 탁아소 건립 계획을 위선적 자선사업으로 바라보는 김광호의 냉소적 태도로 드러난다.¹³⁾ 또한 이 신길정 탁아소는 건립 과정이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만 할 뿐, 해당 장소가 직접 재현되지는 않는다.

반면 <대경성정도> 5분도 한 장에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이경희, 김광호, 이신국, 강현순, 송현도 등 주요 인물들의 집과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 장면 또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사랑의 수족관』은 생산보다는 소비와 중개(仲介)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성

문, 2019, 43면.

12) “아직 막연히 동대문밖에다 설치할까하는 생각뿐이지 장소도 딱이 작정된건 아니야요. 경인일체(京仁一體)에 따라 노동자의 부락이 새로 생길것두 같고…… 그래서 처음은 아버지의 대흥공작의 공장도 영등포에 있구해서 거기다 세워 볼까 했어요.”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1940, 234면.

13) 김남천, 위의 책, 43면.

의 시가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카프 해산과 전향 이후, 전시동원체제로 접어든 1939년의 상황에서 김남천이 할 수 있었던 나름의 실험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경희와 김광호로 대표되는 중류계급 이상의 양심적 인물들을 가장 식민자본주의적인 도심 공간에 배치해 놓고 이들의 고민과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현도나 신 주사 같은 부정적 인물들, 그리고 노동 계급에 속하는 강현순 또한 같은 도심 공간에 위치해 이경희, 김광호와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며 서사를 추동해 나간다. 첫 부분에 등장하는 평안도 토목공사 현장과 서사 말미에 경희가 광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만주국 길림시 정도를 제외하면 『사랑의 수족관』의 거의 모든 사건은 1:6,000 축척의 지도 한 장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관상을 위해 수생생물을 유리 상자에 가둬 놓은 '수족관'인 셈이다.¹⁴⁾

적어도 1939년의 시점에서 김남천은 수족관 밖, 즉 산업 현장과 노동계급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재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기영의 『인간수업』(1936), 『동천홍』(1944)이나 한설야의 『황혼』(1936)처럼 카프 출신 작가들이 카프 해산 이후에도 산업 현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드물지 않게 발표했던 반면, 1930년대 후반 김남천 문학은 도시 공간 중에서도 주거지구와 상업지구에서 재현의 프레임에 한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¹⁵⁾ 이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경영과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공업계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의식

14) 권은은 이 시기 김남천이 파리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 놓인 여러 인간 군상들을 '박물학자'와 같은 자세로 관찰하겠다는 '인간의 박물학'을 표방한 발자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것이 관찰문학론의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관찰'과 '박물학'이라는 개념은 김남천이 경성을 일종의 '수족관'으로 재현한 것보다도 맥이 닿는다. 권은, 앞의 글, 65면.

15) 단, 경성이라는 도시공간 외부로 눈을 돌리면 다른 논의가 가능해진다. 조윤정은 「세기의 화문」(1938), 「바다로 간다」(1939), 「낭비」(1940)에서 바다는 공간이 중요하게 다뤄짐에 주목하여, 김남천이 바다의 풍속을 서사화함으로써 일제 말기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가하고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조윤정, 「개발된 조선과 해변의 풍속 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96, 현대소설학회, 2024, 326면.

한 결과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김남천이 산업 현장과 노동 계급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수족관’이라는 비유가 함축하듯, 수족관 외부에는 자연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계(界)가 존재한다. 소설로 쓰지는 않았지만/못했지만 <대경성정도> 5호 분도와 『사랑의 수족관』의 서사 공간에는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 경성 외곽의 공업지대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반자본, 반식민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김남천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남천이 쓸 수 있었던 소설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영역들, 즉 ‘수족관 밖’의 이야기를 역상(逆像)의 서사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는 소설뿐이었을 것이다.

3. 대경성에서 ‘해방 서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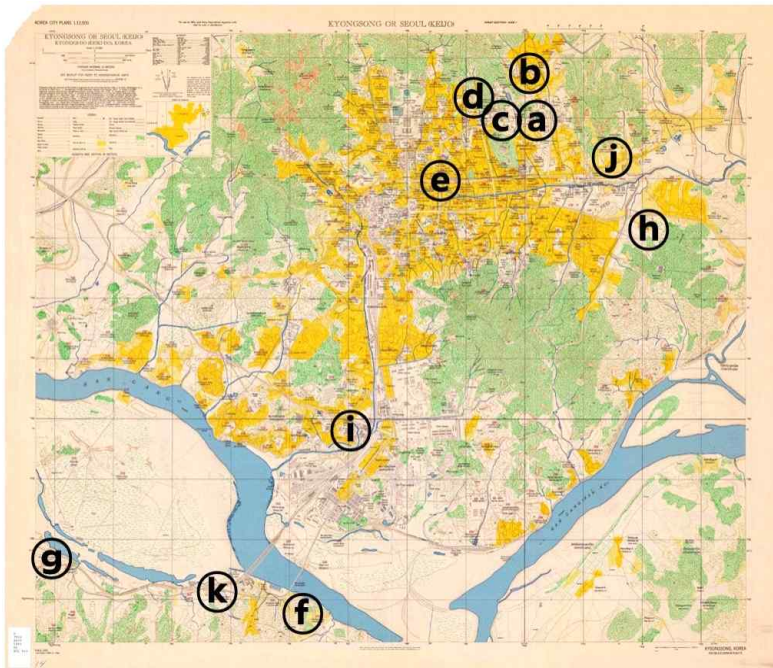
『사랑의 수족관』을 비롯한 1930년대 후반 김남천 문학을 전향 문학으로 보는 관점을 연장하면 해방 이후 김남천의 문학들은 전향자의 자기 고백과 자기비판의 문학이 된다. 김남천은 지식인이 과거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민중과 함께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고,¹⁶⁾ 이는 ‘전향자’ 시절에 창작했던 『사랑의 수족관』의 프로타고니스트인 이경희와 김광호를 『1945년 8.15』에서 타락한 유한부인이자 노동 계급의 적으로 재현한 결과로 나타난다. 「맥」에서 강렬하게 재현되는 법정 장면을 떠올리면 전향의 경험이 김남천에게 결코 치

16) 이양숙, 「해방직후 김남천 장편서사에 나타난 식민기억과 문학적 ‘자기비판’의 양상-『1945년 8.15』, 『시월(十月)』, 희곡 『三一運動』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3, 2011, 개신어문학회, 250면.

유될 수 없는 외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를 연속적으로 해석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인물의 성격 변화를 오롯이 ‘전향’이라는 작가의 외상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위치해 있는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을 해방공간이자 전후공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주요 장소들의 의미와 전작의 프로타고니스트였던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한 이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긍정적 주체들의 성격을 도시공간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45년 8.15』의 주요 장소들을 지도상에 표시(mapping)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945년 8.15』의 주요 장소들

〈표 2〉 〈그림 2〉의 번호 설명

번호	장소	지명
㉠	대학병원	연건동
㉡	박문경의 집	명륜동
㉢	이신국의 저택	원동
㉣	김지원의 기숙(누이의 집)	가회동
㉤	인민공화국 수립 지지 데모	종로 네거리
㉥	김광호·이경희의 저택	명수대
㉦	김지원의 활동지	영등포
㉧	박문경의 활동지	신당동
㉨	박무경의 학도대 활동지	삼각지
㉩	이창현·이정현의 집	창신동
㉪	전재민 집단주거지	노량진

〈그림-2〉는 워싱턴 D.C의 ARMY MAP SERVICE(미육군지도청)에서 제작된 〈KYONGSONG OR KEIJO(SEOUL)〉(1946)이라는 제목의 1:12,500 축척 지도¹⁷⁾이다. 제목에 ‘KYONGSONG’과 ‘SEOUL(KEIJO)’을 병기하여 식민지 조선의 중심 도시였던 경성의 일본어 발음과 조선어 발음, 그리고 해방된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히 흥미롭다. 이는 해방공간에 식민지로부터 이어진 것들과 해방을 맞아 새롭게 (재)구성된 것들, 외부로부터 이입된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군정의 통치를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지식이 모두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1:6,000 지도 한 장에 모두 담길 수 있었던 『사랑의 수족관』의 서사 공간과는 달리,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선 1:12,500 축척의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 그리기를 통해 나타난 장소들의 패턴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 ㉡, ㉢, ㉣ 네

17) 지도 좌중앙 상단에는 “For use by War and Navy Department Agencies only”라고 되어 있어 군사적 목적에서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1945년 9월 9일부터 군정 체제를 수립한 미군은 통치를 위해 영문으로 된 서울 지도가 필요했고, 기존 지도와 첩보자료를 기반으로 영문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군사적 목적으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자(그리드) 표기가 되어 있고, 일본식 지명과 랜드마크의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노란색 음영으로 강조된 지역은 시가지이고, 녹색은 산지, 강조 없는 지역은 농지 등의 평지이다.

장소의 인접성이다. 서사 초반(해방 전)에 김지원은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㉔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병반대 격문사건으로 검거되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뒤에도 장질부사로 인해 ㉔대학병원 격리병동에 한동안 입원해 있게 된다.¹⁸⁾ 김지원의 숙소인 누이의 집은 ㉔가회동¹⁹⁾으로 명륜동에 위치한 ㉔박문경의 집과는 어렵지 않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다. “자본가 지주의 정당”²⁰⁾인 ‘대한공화당’ 창당 준비 본부로 쓰이고 있는 ㉔이신국의 저택은 원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사랑의 수족관』과 동일한 설정이다. 다만 『1945년 8.15』에서는 이 원동 저택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며, 김광호의 대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재현된다. 장소의 물리적 거리가 인물 사이의 정서적 거리와 비례했던 『사랑의 수족관』의 서사 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1945년 8.15』에서도 주요 인물들-김지원, 박문경과 이정희, 김광호-이 적어도 서사 전반부까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²¹⁾ 다만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은 6장(‘전열 옆에서’)을 기점으로 대폭 확장되며, 지리적 위치가 인접한 인물들의 관계 또한 크게 변화한다.

㉑는 김지원과 함께 학병반대 격문사건으로 체포되어 옥살이 중에 사망한 이창현과 그의 여동생 이정현의 집이다. 이정현은 동래고등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박문경에 비해 교육 수준은 낮지만, 사회주의 사상과 계급의식을 선취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눈이 정다우리만큼 동그랗고

18) 이 대학병원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사회주의자였던 김광호의 형 김광준이 급성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는 장소이기도 하다. 권은에 따르면 김남천의 작품들에서 경성제대로 대변되는 동숭동과 혜화동 일대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사상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거나 죽음을 맞는 부정적 공간으로 그려진다(권은, 앞의 글, 259면). 이런 맥락에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1945년 8.15』의 김지원이 장질부사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사회주의 활동가로 변모한다는 설정은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이 역상으로 구성되었음을 방증한다.

19)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김광호의 본가가 가회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20)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186면.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하는 경우 인용문 말미에 면수만 표기함.

21) 박문경은 해방 직전까지 이신국의 대흥콘체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부빛이 약간 철색이어서 어딘가 눈에 뜨이리만큼 정열적인 얼굴 모습(144면)이라고 묘사되는 이정현의 외형이 이러한 인물의 성격을 뒷받침한다. ㉠이정현의 집은 창신동, 즉 동대문 밖이므로 ㉡~㉣와 직선거리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권역상 전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창신동은 1930년대부터 봉제, 제화(製靴) 등 경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인근의 신당동과 함께 인구수로는 1, 2위를 다투던 동이었다.²²⁾ 따라서 ㉡~㉣가 위치한 전통적 거주지역인 북촌과는 장소의 의미와 맥락이 다르다. 서사 후반 박문경의 활동지가 되는 ㉤신당동 일대와 묶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는 종로 네거리로, 인민공화국 수립 지지 데모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했듯, 시위와 빼라²³⁾가 범람하는 ‘거리의 정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재현되는 장소라고 하겠다. 천정환에 따르면 해방기의 정치는 한국 정치사 전체에서 유례없는 ‘거리의 정치(politics of street, street politics)’이자 ‘거리의 민주주의’였으며, ‘거리의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서 민중의 직접 행동으로 이루어진다.²⁴⁾ 박문경은 이 데모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임시정부 인사인 부친과의 정치적 입장 차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김지원의 정치적 노선을 완전히 따르게 된다.

㉦영등포와 ㉧신당동은 부르주아 지식인에서 사회주의 활동가로 변화한 김지원과 박문경의 활동지이다. 김지원은 감옥에서 만난 황성묵의 지도를 받아 종로 네거리 데모 직후 영등포 지역으로 배치된다. 주지하다시피 『사랑의 수족관』에서 영등포는 대흥공작 공장이 위치한 곳이며, 이경희가 사회사업으로서 탁아소를 건립하는 곳(신길정)이기도 하다. 전작에서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었던 영등포가 『1945년 8.15』에서는 직접적으로

22) 「동부경성입삼개정 주민은 십만을 돌파」, 『조선일보』, 1936년 4월 25일.

23) 정선태, 「빼라, 매체에 맞서는 매체-해방 직후 소설을 통해 본 빼라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31면.

24)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58면.

재현되는 장소가 된다. 김지원은 “동양제강(東洋製鋼) 영등포공장(永登浦工場)에서 선반공(旋盤工)으로 십 년 동안의 경력을 가졌다는 오성주(吳星周)라는 분네의 건넌방”(290면)에 머무르며 사회주의 운동가로 변화해 간다. 박문경 역시 김지원의 지시에 따라 신당동에 있는 신오순이라는 운동가 아래로 배치된다. 이때 ㉔영등포와 ㉕신당동 모두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난 외곽 지역이며, 공업지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김남천은 “하나는 동구, 하나는 영등포구, 동쪽의 한 끝과 남쪽의 한 끝으로 갈라져서 마치 견우, 직녀처럼 흠뻑으로 싸우고 있는 젊은 남녀”(321면)를 이 소설의 프로타고니스트로 설정함으로써 『사랑의 수족관』의 역상으로서의 서사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㉖김광호와 이경희의 저택이 위치한 명수대는 장소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수족관』은 이경희와 김광호의 혼인이 성사될 것을 암시하며 끝나므로 그들의 신혼집이 어디인지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김남천은 『1945년 8.15』에서 그곳을 명수대로 설정한 것이다. 현 동작구 흑석동에 있던 명수대는 1930년대에 택지(宅地)로 개발된 지역으로, 문화주택촌이 형성되어 중상류층의 주거지역이 된 곳이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강을 끼고 있는 명수대는 피서지로도 유명하여 풍기취체(風紀取締)의 대상지가 되기도 하였다.²⁶⁾ 김남천은 「속요」(1940)에서도 전향 이후 일제의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인물이 홍순일이 친구의 아내인 이정임과 밀회하는 장소를 명수대에 위치

25) 신당동(신당정)은 김남천의 식민지 말기 작품인 「속요」(194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속요」에 나타난 신당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권은, 「사상 통제의 매커니즘과 전향작가의 망탈리테-김남천의 「속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8, 우리말글학회, 2023, 334-335면 참조.

26) “요지음 더위에 피서객들도 만히 찾게되는 로량진(鷺梁津) 한강신사(漢江神社) 명수대(明水臺) 방면에는 풍기상 조치 못한 일이 만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십팔일 오전 한시부터 좌등고등주임의 지휘하에 사복경관을 총동원식하여 동지대를 일제검색한 바 이 토벌에 걸린 자는 상당한 가정 출신의 남녀가 끼워잇었다는 바 전부 아홉사람으로서 한명 외에는 엄중설유 후 석방하였다고 한다.” 「한강변풍기취체」, 『조선일보』, 1935년 7월 21일.

한 여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명수대에서 벌어지는 이경희와 박무경의 외도는 식민지시기에서 이어지는 장소의 표상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또한 ㉑명수대는 ㉒영등포, ㉓신당동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던 도시의 외곽 지역이자 한강 이남이기도 하다. 즉, 식민지의 기억을 간직한 전통적 도심지역인 ㉔~㉕와도, ‘거리의 정치’의 현장인 ㉖종로 네거리와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남천이 『1945년 8.15』에서 김광호와 이경희에게 부여한 성격과도 관련된다. 와다 도모미와 김주리²⁷⁾의 지적처럼, 이경희는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 모두에서 부권(父權/夫權)으로부터의 탈주를 시도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경희는 이지(理智)를 갖추고 있지만 정열을 상실한 여성으로서 그와 박무경의 외도 또한 방향성을 잃은 주체들의 혼란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양숙의 해석도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²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㉑명수대의 위치는 ㉖종로 네거리의 ‘거리의 정치’에도, ㉗원동 이신국 저택의 ‘자본가 지주의 정당’에도 온전히 동화될 수 없는 이경희와 박무경의 캐릭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김광호가 친일 혐의를 받는 장인 이신국이나 미군정 군정고문관인 처형 이경철을 대신해 사실상 ‘대한공화당’ 대표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회의적 반응²⁹⁾을 보이는 것 또한 명수대와 원동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설명될

27) 김주리, 「해방기의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 과 (1945년 8.15)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72-173면.

28) 이양숙, 「解放期 女性과 政治: 獻身과 贖罪를 통한 政治的 再生」 『1945년 8.15』와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한국어문학회, 2011, 363-366면.

29) “그럼 그 성명의 내용은 무언가 하니 본인(이신국-인용자)이 관계한 대흥계의 산업시설이나 경영기구는 일체 과거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 삼천만 동포 여러분의 절대한 후원으로 된 것이요, 또 나 개인으로 보면 삼천만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자기비판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라 생각한 결과 대흥의 기구 경영 일체를 들어 이를 새로 서는 우리 국가에 종속시키는 동시에 본인은 차후 계계를 위시하여 여하한 장소에서도 은퇴하여 오로지 여생을 자기수양에 바치려고 하오니 사회 대방(大方) 재현계습서는 일층의 편달을 주시옵기 간망하나이다.” 김남천, 『1945년 8.15』, 181-182면.

수 있다. 즉 ㉠명수대는 '거리의 정치'(㉠종로 네거리)와 '반동의 정치'(㉠원동 이신국 저택)로부터 모두 거리를 둔 채 강 건너에 위치해 사태를 관망하는 자들의 위치/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지역의 의미화는 '명수대 문화촌'³⁰⁾이 위치한 이 지역이 산업 지구보다는 중상류층을 위한 택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도 연관된다.³¹⁾ 다만 서사 후반 이경희는 ㉠원동 이신국 저택에서 이뤄지는 미군정 인사 초청 파티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끌리게 된다.

①삼각지는 작중에서 이경희의 대사를 통해 아주 소략하게 언급³²⁾되지만, 박무경의 학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상 중요성이 작지 않다.

“학도대에서 나와서 치안도 유지하구 그랬었는데 요즘 군대가 다시 나서서 어디선가에선 학도대와 군대가 충돌두 했다가 그러는가봐요.”

총을 메고 완장을 두르고 트럭을 달리고 교통을 정리하고 치안유지에 분망하고 있을 무경을 잠시 생각해본다.

징병 갈 날이 가까워 온다고 대체 어떡해야 할 거냐고 걱정하고 있던 동생이 건국을 위하여 총을 들고 일본군대와 충돌하고 하는 것은 사나이의 본회(本懷) 이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³³⁾

이혜령은 김남천이 『1945년 8.15』에서 박무경을 거의 총과 함께 등장시켰음을 지적하며, 해방의 '歡'으로 주어진 총이 그 흥분과 모험을 '患'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암시하고, 역설적으로 박무경과 같은 청년들이 체현

30) 이 용어는 1930년대 신문 지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京城近郊의 택씨賃減下」, 『조선일보』, 1934년 11월 3일.

31) 권은, 앞의 글, 336면.

32) “어저께 오정 때쯤 집을 나오다 삼각지에서 동생을 봤었지. 팔에다 완장을 둘러고 교통을 정리하구 있두군요.” 25면.

33) 26면.

했던 ‘환’이 1945년 8.15의 잔상에는 더 가까운 것임을 반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³⁴⁾ 기실 ‘총 든 청년들’은 삼각지뿐만 아니라 해방기의 서울 요처마다 있었다. 박문경은 청량리역에 내리자마자 “전차정류장까지 잇닿은 군중, 사람의 물결, 학도들이 탄 트럭, 택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싸이드카가 달려”(22면)오는 광경을 목도하기도 한다. 다만 『1945년 8.15』에서 ①삼각지는 박문경이 소속되어 있는 우익 계열 학도대가 활동하는 대표적 장소로 언급되며, ‘총’의 파토스로 표상되는 박문경의 정치적 지향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지향하는 김지원-박문경의 그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서사 중반 박문경은 학도대를 탈퇴하고 명수대에 머무르며 이경희와 외도를 벌이는데, 이때 권총 한 자루를 여전히 숨겨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을 요한다. 이해령에 따르면 치안유지를 위한 총을 여성을 유혹하는 데도 쓰는 박문경과 같은 청년의 형상에서 보여지는 정치/연애, 혹은 공/사의 교차와 교환, 뒤섞임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냉소주의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 내포되어 있다.³⁵⁾ 이런 맥락에서 학도대의 활동 지역³⁶⁾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심부(종로 네거리 및 원동)와 정치로부터 이격된 사적 영역(명수대)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은 학도대 활동의 성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장소는 ②노량진이다. 노량진은 종로 네거리 데모 이후 사라졌던 김지원과 박문경이 재회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귀환자들이 임시적으로 머무는 도시 공간이라는 점이다.

다리 언저리와 가상을 돌아서 다리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위에서

34) 이해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회, 『상허학보』 27, 2009, 34-35면.

35) 이해령, 위의 글, 35면.

36) 작중에서는 청량리역과 삼각지 일대로 나타난다.

생각했던 것과는 판판이었다. 다리 밑에 그늘을 의지하여 이제민인지 차라리 거지라고 하고 싶은 두세 가족이 거적으로 막을 치고 으슬어트리고 움직거린다. 혼한 물로 낚도 씻지 않은 부인네가 허리피춤을 풀어헤치고 이 사냥을 하고 있다. 그 옆에 아이가 달려서, 젖을 시끄럽게 쥐어 뜯고 있다.

문경은 얼른 눈을 피하여 강 건너를 본다. 그러나 강물이 미치지 않는 모래터로 된 강 건너 다리 밑에는 먼 발로 마치 부락을 이루어 놓은 양한 물커니의 전재민의 살림이 벌어져 보였다.

해방 직후 기차를 타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때의 기억이 살아났다. 청량리역에서 본 전재동포의 무리들, 그들이 갈 곳은 구경 이러한 곳이었더냐 싶었다.³⁷⁾

이 장면에서 묘사된 전재민들은 해방을 맞아 일본, 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귀환자들이다. 서사 초반에 박문경이 다수의 전재민을 목격한 청량리역은 서울과 경주를 잇는 중앙선의 시종착역이므로,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사람들일 것이다. 만주 지역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주로 경의선을 이용해 경성역과 용산역을 거쳐 서울 각지로 쏟아져 나왔다. “매일처럼 남북에서 몰려드는 이 수천수만의 전재동포들”(22면)의 처리 문제가 해방정국의 중대 문제였음을 감안하면 『1945년 8.15』에서 이들의 공간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다리(한강철교) 밑과 여의도 모래톱 일대 임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³⁸⁾ 전재민, 즉 귀환자들은 ‘거리의 정치’에도, 친일 자본가 세력과 임시정부 인사가 결합한 반동적 정치세력에도 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박문경은 김지원의 정치 노선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들의 가치와 인간성과 정당한 생활감정을 다시 찾아올 방

37) 264-265면.

38) 이는 명수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에서 한가로이 보트를 타는 남녀의 모습과도 대비된다. 224면.

도”(266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1945년 8.15』를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좌우 대립의 서사로 읽어내는 한 이들 전재민들의 모습은 의미화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의 이분법과 지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해석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4. 총후(銃後)와 적산의 전후공간론

서사 초반, 부산 동래여고보 교사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온 박무경은 청량리역에서 이경희의 차를 얻어 탄다. 이경희는 전쟁 말기에 공습을 피해 마석(磨石·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소개해 나갔다가 해방을 맞아 서울로 귀경하는 중이었다.

대홍산업을 그만두고 동래로 내려 갈 때 대홍콘체른의 총사장인 이신국 씨가 마석에다 소개해 나갈 커다란 집을 장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다시 지난 봄에 상경했을 때에 이신국의 서자 경선(慶善)이의 학업을 가정에서 지도하고 있는 남동생 무경이한테서 이신국이네가 마석에 집을 세 채를 장만하고, 한 채는 원동에 본집을 둔 이신국이와 경희의 서모 은주(銀珠) 부인이 사용하고, 한 채는 삼청동에 사는 이신국의 장남 경철(慶哲)네가 그의 고모와 함께 붙어 있고, 마지막 좀 떨어져 있는 한 채에는 명수대에 본택을 둔 이신국의 사위 김광호(金光浩)와 그의 아내 경희네가 들기로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³⁹⁾

『사랑의 수족관』에서 묘사되었던 방공(防空) 훈련 장면⁴⁰⁾을 떠올리면 이신국 일가가 공습을 피해 마석으로 소개해 나갔었다는 설정은 의미심

39) 24-25면.

4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116면.

장하다. 군수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신국 일가는 그 재력을 바탕으로 전화(戰火)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촌으로 소개(疏開)할 여유와 사회적 인맥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도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사람들보다 전재(戰災)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낮았다”⁴¹⁾는 사카사이 아키토의 논의는 해방된 서울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폭격도 한번 없이 전쟁이 끝나고 보니 대범위로 소개를 했던 분들이 되려 걱정거리가 되었구나”(25면)라는 박문경의 생각처럼 서울은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미군의 폭격으로 ‘잣더미’가 되었던 일본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어디까지나 후방, 곧 ‘총후(銃後)’였다.

하지만 총후라고 해서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작중에서 김광호는 다음과 같이 자조한다. “조선의 자본가나 재벌이란 무엇이야. 그건 아무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적 토대가 없는 곳에 일본제벌과 식민지적 정치가 들어와 그 보호와 품 안에서 작다란 소산업이나 소공업으로 일어난 것이오, 전쟁이 있는 뒤편 군수정책의 앞잡이로 차츰 융성해 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융성의 토대가 되고 정책의 근본이 된 것이 일본군국주의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쟁강행정책이고 보니 8월 15일 뒤 일본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해서 이루어진 자본이나 산업이 그것을 넘어뜨린 연합국이나 또 그 전쟁에 희생된 동족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설까 하는 건 세 살 난 아이래두 알 일이 아니오.”(140-141면) 즉, 김남천은 이신국 일가로 표상되는 조선의 자본가, 재벌들의 부와 권력은 근본적으로 식민지배와 전쟁에의 협력을 통해 축적되었음을 김광호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문경의 부친 박일산으로 표상되는, 환국이 예정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는 명분은 있지만 자본이 없다. 이신국과 같이 일체에 협력해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에게는 자본과 세력이 있지만 명분이 없다. 이 두 집단이

41)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옮김, 앞의 책, 13면.

손을 잡고 정치세력화하여 건국의 국면에서 해계모니를 잡는다면, 나라는 일종의 적산(敵産)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단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형성된 피 묻은 자본(赤産) 위에 말이다.

그렇다면 적산에 묻은 피는 누구의 피인가? 『1945년 8.15』의 서사에서 살펴보면, 이 피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우선 박문경·박무경의 부친인 박일산과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외로 망명해 활동했던 항일 인사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직접 재현되기보다, 최진성과 같은 구세대 지사(志士), 명망가 집단에 의해 매개되는 양상을 보인다.⁴²⁾ 다음으로는 박무경으로 대표되는 청년·학생 집단이다. 박무경은 가까스로 징병을 피해 해방을 맞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집단에는 학병동맹 인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⁴³⁾ 마지막은 황성묵으로 대표되는, 조선 내에서 활동했던 좌익 운동가 집단이 있다. 김지원은 학병반대 격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만큼 두 번째 집단과도 친연성이 있었지만,⁴⁴⁾ 황성묵과의 만남을 통해 세 번째 집단 쪽으로 기울게 된다.

첫 번째 집단의 세력 기반이 일제에 협력한 자본가와 지주들의 부(富)로부터 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년·학생 집단이 갖고 있는 힘, 즉 무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박문경 모친의 대사를 통해 서술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7일 아침엔가 그렇다. 제 말엔 동무 다섯이서 도 경찰부루 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특별 경찰대를 쫓아 들어갔더란다. 그때만 해두 모두 무슨 심판인질 몰라 어리둥절했을 때에

42) 김남천은 이 집단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최진성이 건넌 돈을 거부한 박문경 모친의 의연한 태도에 대한 묘사에서 엿볼 수 있다.

43) 이해령, 앞의 글, 16면.

44) 김지원과 함께 구속되었던 김성환은 학병을 지원했던 학우들의 간청으로 학병동맹에 가맹했으나 뜻한 바가 있어 고향인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87면.

순사들을 데리구 무기창고를 열었는데 권총이 뽀짝뽀짝한 것이 수백 자루가 걸려있더라. 그래 아마 엄병김에 한두 자루씩 들구 나온 모양인데”(60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의 힘을 실제적·상징적으로 표상하는 ‘총’은 본래 식민권력의 경찰력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박무경을 비롯한 청년들은 미군에 의한 무장 해제라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마치 빛을 돌려받듯 자연스럽게 총기를 획득해온다. 강탈(強奪) 보다도 접수나 추심(推尋)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한 장면이다. 임세화에 따르면 ‘적산’은 탈식민의 욕망이 투사된 헤게모니적 용어로, 미군정에 의한 일본(인) 재산의 접수·불하라는 절차와 무관하게 해방기 조선인들—개인·단체·정당·신문·잡지를 망라하여—‘적산’을 ‘조선의 것/조선인의 것’으로 인식하고 언포하였고 이것은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자신들을 연합군(미군)과 동일시하면서 승전국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무의식적 욕망이었다.⁴⁵⁾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무경과 학도대가 보유한 총기는 온당히 조선(인)의 것이어야만 하는/했던 것을 돌려받은 셈이다. 임정 인사와 친일 자본가·지주 세력이 결합한 첫 번째 집단과 무장한 청년·학생 집단이 서사 내내 우호 관계에 있으며, 박무경이 학도대를 탈퇴한 뒤 “인민공화국 반대와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내걸구 새로이 청년단을 조직하는 적극적 활동”(221-222면)을 전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세력의 자본력과 무력 양자 모두는 적산으로서/써 구축·구성된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세 번째 집단, 즉 남로당 계열의 좌익 활동가들의 세력 기반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작중에서 묘사되는 이들의 대표적 활동지역이 영등포 일대와 서울 동부의 공업지대라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영등포 일대는 일제의 ‘경인일체’ 계획에 따라 형성된 공업지대였

45) 임세화,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적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4면.

46) 다만 이경희와 외도를 저지른 박무경이 김광호와는 연적(戀敵)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결합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으며, 서울 동부 지역은 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⁴⁷⁾으로 두 지역 모두 식민지 경영 및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김남천은 작중 황성목의 말을 통해 현하의 정세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만이 정당”(140면)하다고 규정하고, “조선과 같은 민족해방의 특수한 계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밑으로부터의 조직과 동시에 위로부터 조직하는 것도 조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 조선에서 가장 옳은 방법”(300면)임을 강조한다. 이는 박헌영의 ‘8월 테제’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종로 네거리 데모 장면에서 그대로 투사된다.

행렬은 차츰 종로 네거리를 가운데로 뭉치어들기 시작한다. ‘조선비행기’, ‘중연방직’, ‘조선기계’, ‘조선중기’, ‘영등포철공’, ‘서울피복’, ‘출판노조’, 가로 세로 단체를 표시한 기치 밑에는 각 공장의 노동자와 직공과 여공과 소년공이 손에 손에 붉은 기와 태극기를 들고 비에 젖은 채 만세소리에 열광하여 종로 네거리를 순식간에 뒤덮어버린다.⁴⁸⁾

이 장면에서 묘사된 단체 중에는 비행기, 기계, 중기(重機), 철공, 피복 등 군수산업과 관련된 산업 또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조선인민의 정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조선의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과 도시소시민 봉급생활자, 인텔리겐차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조선공산당의 결성 만세”(161면)⁴⁹⁾를 외치는 조선공산당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군수산업을 비롯한 일제가 남긴 공업 인프라를 빠르게 장악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수행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김남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47) 박문경이 신당동에서 맡게 된 일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세일약품공업주식회사의 조직 사업을 밖에서 원조하는 것이며, 제약은 산업별로 화학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노동조합 세일제약 분회 결성을 지원하는 일이 된다. 326면.

48) 158면.

49) 161면.

박헌영은 '8월 테제'의 서두에서 “국제 파시즘과 군벌 독재의 압박으로부터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전 세계 인류는 구원되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실을 “우리가 전쟁에 이기었다는”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바 있다.⁵⁰⁾ '8월 테제'의 텍스트 내적 맥락상 이때의 '우리'란 전 세계 인류, 또는 피지배계급 전체를 가리키지만, '일본 제국의 유산(적산)을 누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1945년 8.15』는 남조선노동당의 입장에서 '위로부터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적산의 신속한 장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민공화국 건설이라는 해답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⁵¹⁾

정리하면 『1945년 8.15』에서 제시된 세 집단은 모두 전쟁과 총후라는 특수 상황에서 형성된 유산, 즉 적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제가 남긴 공업시설이 집중된 서울의 외곽, 즉 영등포와 서울 동부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가 핵심적 문제가 되는데, 이는 작중에서 대홍방적 파업이라는 사건을 둘러싸고 형상화된다. “좀더 대홍제벌의 정치적 음모와 과거의 죄악과 연결시켜 근로대중은 물론 일반 시민 전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308면)라는 서술을 통해 추측하건대, 김남천은 김광호·이경희와 김지원·박문경을 서사상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대립시킬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홍방적 파업과 세

50) 박헌영,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잠정적)』,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1945년 9월 25일.

51) 종로 네거리 데모 장면에서 제시된 구호들을 살펴보면 “생활필수품의 배급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배급을 실시하자!”, “평화산업을 다시 여러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노력하자!”,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대우를 개선하는 모든 시설을 만들라!”, “몸에 해로운 노동은 여섯 시간제로 하자!”, “노동임금이 있어 민족 연령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자!”, “부인 노동자의 산전산후 두 달 동안 노동을 면제하라!”, “노동자, 농민, 도시근로자, 부급생활자의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자!”와 같이 생산력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161면). 이는 “지금은 계급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시기가 아니요, 또 산업을 부흥하여 강력한 경제 건설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를 세운다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여 산업 건설이라는 큰 목표 밑에 싸움을 전개하여야 한다”(306면)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제약 노조 결성을 진행시킴으로써 ㉔원동/대한공화당과 ㉕명수대를 잇는 축을 ㉖영등포 일대와 ㉗신당동 일대(서울 동부)가 양면에서 포위하는 서사 공간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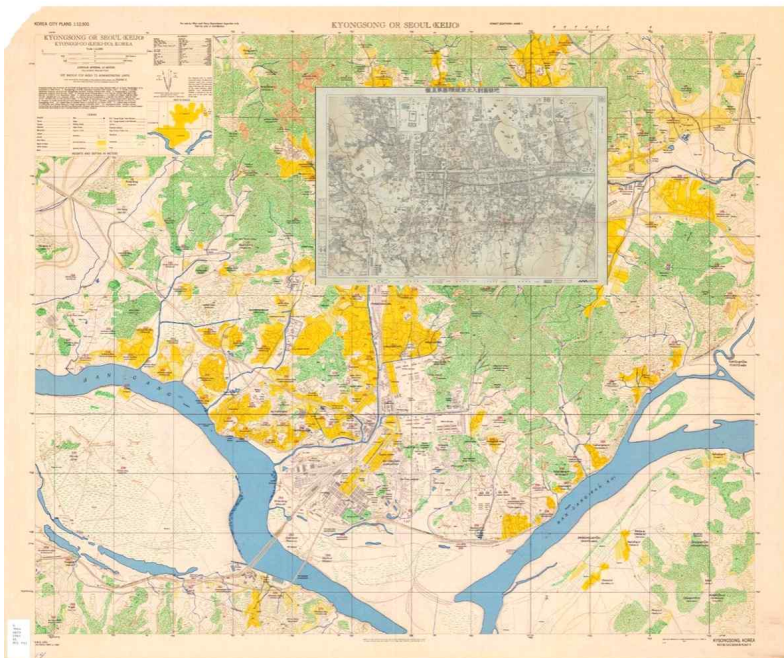
이러한 총후와 적산의 전후공간론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젓더미’부터의 부흥을 내세웠던 일본의 전후공간론과는 물론 다르다. 앞에서 살폈듯 해방공간의 전후공간론은 적산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남지 않았음’의 표상에서 출발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남기고 간 것들’을 장악하는 투쟁이 전후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가 된다. 그러나 일본의 ‘젓더미’ 표상이 패전 이전에 구축된 부와 권력이 전후에도 이어짐을 은폐하는 집단적 환상으로 기능했듯이, 적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좌우 대립의 서사로만 해방공간을 바라본다면 『1945년 8.15』에서 스치듯 재현되었던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가시화되기 어렵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에게는 적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박문경의 눈에 구홀·구빈의 대상으로서 시혜적으로 포착되었듯, 그들은 결코 ‘전쟁에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김남천은 서사의 첫 장면에서부터 박문경의 시야에 귀환자들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의식적 각성과 귀환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연동시킴으로써 ‘해방 서울’이라는 서사 공간에 귀환자들의 자리를 미약하나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가 만약 미완작인 『1945년 8.15』를 완결지었다면 좌우 대립과 사회주의 이념의 승리라는 전형화된 서사로 수렴시키지 않았으리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가게모토 츠요시는 식민지 말·전향 이후 김남천의 문학을 항상 주체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주체로 도달하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패배하는 이야기로서 읽어낸 바 있다.⁵²⁾ 이에 따르면 해방 이후 김남천 문학은 다시 상해(임시정부-

52) 가게모토 츠요시, 「유령, 객관, 패배: 김남천 소설에서의 전향과 주체화」,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558면.

인용자)와 같은 '옳은' 기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게 되지만, 『1945년 8.15』에서 재현된 귀환자들은 '옳음'과 '옳지 않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못하는 기호인 셈이다.

5. 확장된 도시공간과 이동의 테크놀로지



〈그림 3〉 〈대경성정도〉와 〈KYONGSONG OR KEIJO(SEOUL)〉를 겹쳐 놓은 이미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1945년 8.15』의 서사 공간은 『사랑의 수족관』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확장되었다. 확장된 공간에는 그에 걸맞은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인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은 도

보와 자동차로 나타나는데, 자동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신국, 송현도 등 극소수의 특권층뿐이었다.

『1945년 8.15』에서도 자가용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이신국 일가와 최진성 등 해방 이전부터 부를 축적한 자들 뿐이다. 김광호는 일 관계로 원동과 명수대 자택을 왕래하는데, 당시 명수대에는 전차 노선이 지나가지 않아서 자가용이 아니면 출퇴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⁵³⁾ 김광호와 이경희가 타는 자동차는 “까만 고급차”(23면)로 “서울서 단 두 대밖에 없는 하드슨(hudson)”(75면)이다. 첫 장면에서 청량리역에서 내린 박문경은 학도들이 타고 가는 화물자동차를 보며 그 안에 무경이 있어 자신을 태워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소개지에서 자가용을 타고 돌아오는 이경희를 만나 차를 얻어타게 된다. 몰려드는 귀환자들로 인해 전차, 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이 혼잡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⁵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특권이다. 김남천은 이러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이신국 일가가 식민권력에 협력함으로써 축적한 부가 해방공간에서도 ‘속도’와 ‘이동의 자유’, 그리고 ‘사적 공간의 확보’라는 형태로 여전한, 또는 한층 더 막강해진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사 초반, 박일산의 옛 동지였으나 변절한 최진성이 박문경의 모친을 청하면서 자동차를 보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작중에서 자가용과 대조를 이루는 교통수단은 ‘화물자동차’이다. ‘허드슨’으로 대표되는 고급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화물자동차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그려진다.

이때에 안국동 쪽으로부터 허리에다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라고 쓴 흰 광목필을 휘감은 화물자동차가 태극기와 연합국기와 표어기를 휘

53) 「속요」에서도 명수대는 전차가 다니지 않아 자동차(택시)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제한되었다.

54) 이는 박문경과 모친의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37면.

날리며 연거푸 4, 5대 젊은 남녀를 가득히 싣고 독을 밀고 몰려들 듯이 행렬의 옆으로 질주해간다. 자동차 위에서 만세를 부른다. 행렬이 마주 받는다. 마침 양쪽 빌딩 꼭대기에서 뼈라가 쏟아져 내려온다. 눈보라처럼 별떼처럼 설레이면서 뼈라가, 뼈라가 쏟아져 내려온다.⁵⁵⁾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화물자동차는 종로 네거리 데모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태극기, 연합국기, 그리고 각종 표어가 적힌 깃발을 달고 젊은 남녀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리의 정치'를 대표하는 스펙터클이다.⁵⁶⁾ 데모 도중 김지원은 화물자동차에 올라타 사라지고(240면), 이후 황성묵도 영등포와 서울 시내를 오가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다.⁵⁷⁾ 즉, 이 소설에서 화물자동차는 좌우를 막론하고 (하지만 주로 좌익 계열에게) 해방공간에서 대중에게 속도와 이동성을 부여하는 테크놀로지로 재현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화물자동차들이 해방 전까지 '국책'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운행되던 화물자동차는 가솔린으로 작동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목탄차(木炭車)가 대부분이라서 고장이 잦았다.⁵⁸⁾ 이놀드 군정청장은 일본군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이천 대를 접수했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해 겨우 팔백 대만 움직이고 있어 생필품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⁵⁹⁾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사용하

55) 158면.

56) 청량리역 장면에서 드러나듯, 학도대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한다.

57) "영등포 앞 반찬가게 이층에서 황성묵 씨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어제 밤 서울에서 회합을 하고 그 결정을 들고 황성묵 씨가 화물자동차로 나와서 몇 동무와 함께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297면.

58) "조선화물자동차회사 영업과장 박명선씨는 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회사는 해방 전까지는 오직 하나인 국책화물자동차운수 회사이었는데 8.15 이후 38도 장벽이 생기자 지방 지점 반수 이상이 38도 이북에 있는 관계로 파행적 운영밖에 할 수 없었고 그후 여러가지 내부적 문제로 지금 겨우 정상적 운영케도에 올랐다." 「폐차상태 것을 무리히 운행중」, 『조선일보』, 1946년 2월 4일.

59) 「일본투자처분 아직 확답할 수 없다」, 『조선일보』, 1945년 12월 5일.

던 트럭이 대량으로 민간에 불하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화물자동차가 적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재현은 테크놀로지가 부르주아지에 의해 이용되면 억압의 수단이 되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유하면 혁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를 상기시킨다. 김남천은 식민권력의 통제하에 있던 화물자동차가 해방공간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복수의 대중을 전시(展示)하고 이동시키는 모습을 재현하였다. 이는 국가(식민권력)가 독점하고 통제하던 이동권과 속도를 대중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방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또 한 종류의 자동차이다.

앞서 가던 지원이가 그때에 뒤따르는 문경을 재촉하듯 뒤를 돌려다 보았으나,

“아, 자동차!”

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클랙션이 요란히 들려서 문경이도 재바르게 길을 비켰는데 미국 군인이 운전하는 작은 꼬마 차는 가벼운 웃음을 남긴 채 그의 옆을 스쳐가듯 지나갔다. 그 꼬마 차를 문경은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고 앞서 가던 지원이도 그것을 유쾌하지 않은 낯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⁶⁰⁾

서사 내내 명수대에 머무르던 이경희는 박무경이 떠난 직후, 울케의 전화를 받고 원동 이신국 저택으로 간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군정고문관이 된 오빠 이경철이 주최하는 홈 파티에 초대받은 것이다. “또 누이가 나서면 참 모란꽃 옆에 선 것 같아서 훈훈히구 환할 건데”(228면)라는 울케의 말, 그리고 양장 대신 조선옷을 입고 나서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이경희의 역할은 미군정 인사들의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

60) 268면.

이다. 박문경은 이를 두고 “마치 여성이라는 공통된 명목으로 해서 자기 자신까지 커다란 욕을 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풍속도”(272면)라는 불쾌감을 느낀다.⁶¹⁾

소개지에서 돌아온 이후 명수대에 감금되어 있다고 느끼던 이경희에게 이동의 명분과 자유를 부여한 것은 미군 지프차로 표상되는, 미국과 미군정의 위력에 대한 선망과 경도이다. 김광호는 “이신국, 이경철, 김광호보다 감금당하여 있다는 당신 이경희 씨가 건국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185면)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소속된 세력은 친일이라는 원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정의 호의를 얻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한편 공장 접수 과정에서 미군정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극좌적 경향이며, 극좌적 경향은 우익적인 탈선보다도 도리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미군정은 총독정치가 아니요, 우리를 해방하여 준 또 해방하러온 군대의 행정기관”(304-305면)이라는 황성묵의 말은 당시 남로당의 정치적 노선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박문경이 목격한 “미국 군인이 운전하는 작은 꼬마 차”와 조선옷을 차려입고 그에 올라탄 이경희의 모습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으로도 덮을 수 없는 불길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미군과 미군정이 순수한 해방군이 아니며,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적산을 접수해 관리해주는 대가를 언젠가는 요구하리라는 예감, 그리고 그 요구는 대단히 불유쾌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것이다.

61) 김주리는 이 장면을 가부장제를 비판하던 지식인 여성이자 친일자본가의 딸인 이경희가 남편의 소극성에 대한 비판으로 자본주의-아메리카 취미에 입각한 반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를 연속된 서사로 읽어내기 위한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하지만, 일제의 군수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던, 이신국으로 표상되는 기회주의적 조선인 자본가의 생존전략과 이경희가 획득한 교양과 문화 자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해 두고자 한다. 김주리, 앞의 글, 190면 참조.

6. 결론을 대신해서

1945년 10월, 해방을 맞은 김남천은 왜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사랑의 수족관』을 비롯한 자신의 ‘전향’ 문학 속 인물들을 불러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러한 김남천의 서사 전략은 자기 부정을 넘어 특수한 형태의 자기 반성과 수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이면서 동시에 창작자-작가였던 김남천에게 있어서 비록 전향 이후 암중모색의 일환으로 만들어 낸 인물과 서사였다 할지라도 이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일제 말기, ‘수족관’ 속 세태만을 그렸던 것은 자신의 본심이 아니었고, 수족관 밖에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본심으로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었다는 강변을 『1945년 8.15』의 역상적 서사 공간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사랑의 수족관』이 카프 해산 이후 계급의식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김남천이 시도한 대안적 서사화, 즉 종류 계급 이상의 양심적 인물들을 식민자본주의적인 도시 공간(도심지)에 배치해서 그들의 행동과 결정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해방과 함께 제약에서 벗어난 김남천이 도심지를 벗어나 도시 외곽의 공업지대를 적극적으로 재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친일기업(대흥콘체른)과 백화점으로 표상되는 소비문화로만 재현되었던 경성/서울의 전통적 중심부는 『1945년 8.15』에서 종로 네거리 데모 장면으로 표상되는 ‘거리의 정치’로 재현된다. 또한 『사랑의 수족관』에서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었던 경성 외곽의 공업지대가 『1945년 8.15』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소설을 해방공간에서의 극렬한 좌우 대립의 서사로만 파악한다면 텍스트의 중층적 의미를 충분히 읽어낼 수 없다. 작중 등장하는 세 집단, 즉 친일 자본가 집단, 학생 집단, 그리고 좌익 운동가 집단은 적

산을 이용해 세력을 구축하였으며 또 적산의 소유권을 놓고 대립한다. 이는 흔히 만세, 데모, 빼라라는 시원(始元)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해방(공간)이 식민지시기에서 이어진 위계적 구조 위에서 구성되고 또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김남천은 이에 더해 해방을 맞아 서울로 밀려들어 온 귀환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노랑진 대교 밑과 여의도 모래톱에서 열악한 임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적산의 상속 투쟁에서 소외된 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한다. 또한 김남천은 미군은 정복자가 아닌 해방군이라는 남로당의 정치 노선을 따르면서도, 미군 지프차를 탄 이경희가 명수대를 떠나 원동 이신국 저택으로 향하는 장면을 박문경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치게 한다. 이렇듯 김남천은 해방 서울의 풍경을 가능한 단선적이지 않게, 즉 총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1940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1936)
〈KYONGSONG OR KEIJO(SEOUL)〉(1946)

2. 단행본

- 前田 愛,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学』, 筑摩書房, 1992.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옮김, 『젯더미 전후공간론』, 이숲, 2020.

3. 논문

- 가게모토 츠요시, 「유령, 객관, 패배: 김남천 소설에서의 전향과 주체화」,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555-574면.
권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작과 비총체화된 총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6, 한국현대문학회, 2022, 235-268면.
_____, 「사상 통제의 매커니즘과 전향작가의 망탈리테-김남천의 「속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8, 우리말글학회, 2023, 315-343면.
김동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2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51-172면.
김주리, 「해방기의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69-195면.
김한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229-247면.
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213-240면.
이민부, 김결, 「미군정 서울 지도의 서지학적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5권 2호, 한국지도학회, 2015, 15-23면.
이영주,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의 재현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9.
이양숙, 「해방직후 김남천 장편서사에 나타난 식민기억과 문학적 '자기비판'의 양상-」

- 1945年 8.15, 『시월(十月)』, 희곡 『三一運動』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2011, 215-255면.
- _____, 「解放期 女性과 政治: 獻身과 贖罪를 통한 政治的 再生-『1945년 8.15』와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한국어문학회, 2011, 351-382면.
-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9-50면.
- 임세화,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적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윤정, 「개발된 조선과 해변의 풍속-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96, 현대소설학회, 2024, 289-331면.
- 정선대, 「빠라, 매체에 맞서는 매체-해방 직후 소설을 통해 본 빠라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31면.
-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55-101면.
- 홍덕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다시 읽기』 -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41-74면.

<Abstract>

Two Maps and ‘Before and After Liberation’ of Kim Nam-cheon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Narrative Spaces in
Aquarium of Love and *August 15, 1945*

Hong, Duck-Gu

Kim Nam-cheon's novel *August 15, 1945*, which began serialization on October 15, 1945, is a work that captures the social condition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real time, and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erial relationship between *August 15, 1945*, and *Aquarium of Love*, which was published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nd aims to reveal that the two works form a narrative space as mirror images. Chapter 1 summarizes the history of research on *August 15, 1945* and introduces Sakasai Akito's research on postwar space of Japan, which deconstructs the myth of ‘rebirth from the ashes’ after the defeat as a research methodology. Chapter 2 reveals that the narrative space of *Aquarium of Love* is limited to the downtown area of Seoul, where commerce and consumption take place, and analyzes this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e title ‘aquarium.’ Chapter 3 uses mapping to present the narrative space of *August 15, 1945*, which extends to the outskirts of Seoul, and analyzes the meanings of each location. Chapter 4 analyzes the three groups that appear in the work—pro-Japanese capitalists, students, and left-wing activists—from the perspective of postwar space theory, showing how they all sought to build their power

through the assets left behind by the Japanese Empire. Chapter 5 focuses on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automobile' as a technology of mobility in the narrative space of *August 15, 1945*, which is nearly ten times larger than that of *Aquarium of Love*, and analyzes the meanings of luxury cars, trucks, and US military jeeps that appear in the novel.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August 15, 1945*, did not converge into a stereotypical narrative of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and the victory of socialism, but rather placed the voices and desires of various subjects in a multi-layered urban space.

Key words: Kim Nam-cheon, *Aquarium of Love*, *August 15, 1945*, Urban Space Theory, Postwar Space Theory, Mapping, Enemy's Property

투 고 일: 2025년 8월 17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